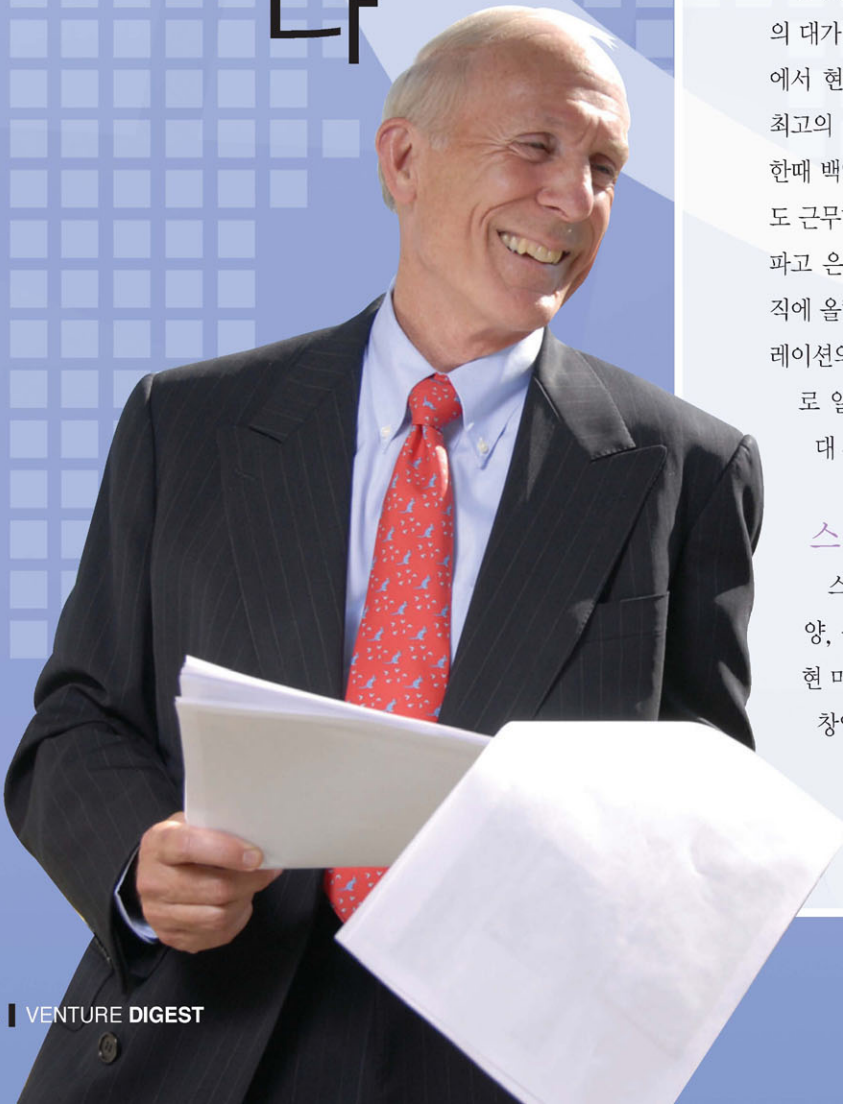


# 한국벤처의 길은 멀다



벤처에 관해 부쩍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요즘이다. 우량 벤처의 상징인 벤처천억클럽의 꾸준한 증가와 글로벌 시장에서 들려오는 벤처의 승전보는 반갑지만, 스타 벤처인 부재, 창업분위기 냉각, 원활치 못한 벤처 투자 등은 여전히 우리 벤처계의 고민거리로 남아있다.

긍정과 부정의 시그널이 교차하는 우리 벤처산업. 때로는 바깥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 창업가 정신의 대가이자 실리콘밸리를 키운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학장 로버트 조스가 우리 벤처에게 조언을 보내왔다.

## 로버트 조스 Robert L. Joss는

현 Stanford Univ. 경영대학원장. 창업가 정신 및 리더십 이론의 대가인 로버트 조스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장은 관계와 금융계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영학자다.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을 최고의 MBA 명문으로 키워냈다고 평가받는 로버트 조스학장은 한때 백악관 펠로우로 활동했고 재무부 경제정책 담당 부장관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금융계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웰스 파고 은행에서 71년부터 근무하기 시작해 93년 이 은행의 부회장직에 올랐다. 이후 호주의 최대 은행 가운데 하나인 웨스트팩 코퍼레이션의 최고경영자를 역임했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진 로버트 학장은 워싱턴 주립대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 스탠퍼드 경영대학은

스탠퍼드는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는 물론 야후 창업자 제리 양, 구글 창업자 세리게이 브린, 현 인텔CEO 크레이그 베크, 현 마이크로소프트 CEO 스티브 발머 등 우수한 글로벌 기업의 창업자와 CEO, 정치지도자를 배출한 실리콘밸리의 요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 Interview



**Q** 한국벤처환경은 몇 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자주 회자되는 것은 바로 초기벤처에 대한 투자 부진입니다. 과거 벤처의 폭발적인 버블이 꺼진 후 엔젤 투자자가 사라진 것은 물론, 벤처 캐피탈사의 투자 역시 기업공개 직전인 최종단계투자자에 몰려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자금이 필요한 초기 벤처기업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이 사장되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M&A 확대 등 다양한 투자회수방법의 모색이 이뤄지고 있으나 미진한 수준입니다. 바람직한 벤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First of all, we can understand the outcome through the economics of venture investment. In the US, the cost of developing a new technology is higher than Korea – perhaps two or three times. But the market for the technology is perhaps much bigger than in Korea – like 10 times.

먼저, 우리는 벤처 투자의 경제적 측면을 통하여 결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비용은 한국에서 보다 높습니다. 아마 2~3배 될 겁니다. 하지만 기술시장이 한국 보다 훨씬 큼니다. 10배 정도입니다.

As a result, US venture capitalists face a much higher expected return for the same amount of investment. Not surprisingly, the VC industry is not as well developed outside the US, and Korea is not an exception. On the other hand, we should not give up on the VC and entrepreneurship in Korea.

따라서 미국 벤처자본가들은 동일 투자액에 대해 훨씬 더 높은 기대수익을 가집니다. 물론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벤처캐피털 산업은 크게 발달하지 못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한국의 벤처자본과 기업이 정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First, Korea leads the world in several technological areas – wireless, semiconductor, display, shipbuilding

and software games. In those areas of excellence, Korean entrepreneurs may have higher chances of success in global markets.

첫째, 한국은 와이어리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소프트웨어 게임 등의 일부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한국 사업가들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을 지도 모릅니다.

Second, globalization is the way to break out of the dilemma. We have seen several success stories by Israeli, Taiwanese and Indian companies in Silicon Valley. These companies developed their technology using their technological base and efficient engineering team in their countries and marketed the products in the global market.

둘째, 세계화는 딜레마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이스라엘, 대만, 인도 기업의 성공담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자사의 기술적 기반과 효율적인 공학 팀을 이용해서 자신들만의 기술을 개발했고 상품을 세계시장에 내놓았습니다.

But we don't see many (or any) examples of such successes by Koreans. In fact, there are dozen cases of Korean entrepreneurs who succeed in the US technology area like Yuri Systems, Xylan, Silicon Image, Exio and Diamond Multimedia, but their technology was mostly developed in the US. Thus, Korea has yet to develop a success model that combines capable Korean engineers



with large global market opportunities. Perhaps the best formula may be a Korean startup with technology developed in Korea by Korean engineers, invested by Korean VCs and operating globally.

하지만 한국 기업의 이러한 성공사례는 많이(아예)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유리시스템스, 자이랜, 실리콘이미지, 엑시오 엔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와 같은 10여 개의 한국기업이 미국 기술 분야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들의 기술은 대부분 미국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한국은 유능한 한국기술자와 대규모 세계시장 기회를 접목한 성공모델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최고의 성공 공식은 한국 기술자가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가진 한국의 벤처기업으로 한국 벤처자본이 투자를 했고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Q** 한국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실제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책은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벤처에서 중견규모 그리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벤처기업은 아주 드뭅니다. 미국의 경우, 어떤 기업 성장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무엇이 미국의 기업들을 성장하고 진보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In the US, governments play the role of an umpire rather than a coach (like in football game). They make sure everybody plays fair, instead of advising one team to win against the other (which is viewed as a foul by the umpire). Instead, the governments (through Department of Defens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nd National Science Foundation) try to make investments in long-term projects that may take too long for commercial firms to develop.

미국정부는 심판의 역할을 하지 감독의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모든 이가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도록 할뿐 한 팀이 다른 팀에 승리하도록 조언하지 않습니다.(그럴 경우 심판의 반칙으로 간주됩니다) 그 대신, 미국 정부는 국방부, 국립보건원, 국립과학재단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이 떠맡기에는 너무 기간이 긴 장기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The results of this policy led to many breakthrough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wireless communications, superconductivity and genome projects. This does not mean that Korean governments – with a relatively underdeveloped VC industry – should copy the same policy. On the other hand, it should take the core lessons from their operations with several exceptions in mind.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인터넷, 무선 통신, 초전도, 게놈 프로젝트와 같은 돌파구적인 기술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교적 벤처자본 산업이 덜 발달한 한국이 동일 정책을 모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은 몇몇 예외에 유의하면서 미국의 운용방식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First, the governments should (if possible) be neutral to all firms and stay away from hand-picking or favoring some companies at the expense of others. It will distort the market competition. Second, the governments should not directly invest in the companies. Governments usually support research (as opposed to product development) at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But there are exceptions. US governments support under-developed sector like minority or female entrepreneurs who need some hand holding at the early stage.

첫째,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기업에 중립적이어야 하며 일부 기업을 골라 특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의 경쟁이 왜곡됩니다. 둘째, 정부는 기업에 직접 투자를 피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제품개발이 아닌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초기 단계에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소수민족 혹은 여성 사업체와 같은 발달의 정도가 낮은 부문을 지원합니다.

Also note that main big investors in Silicon Valley VC funds are university endowment funds and pension funds that have a long-term objective and are big enough to handle the high risk. Korea is in a different situation since it faces a young VC industry, so they may want to be more aggressive in helping startups. But the best policy would be to relax the regulations and level the playing field, so small firms are less subject to the tyranny of big firms. Also they should encourage universities to produce state-of-the-art technologies by efficient funding and university policies. Some experts say that the current technological leadership of the US comes from efficient funding (like NSF and DoD) of research budgets - large in sheer size and smart allocation.

실리콘밸리의 주요 벤처자본 펀드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고 대규모 리스크를 감당할 규모가 되는 대학기금펀드와 연금펀드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한국의 벤처자본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할 수도 있지만 최고의 정책은 규제를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작은 기업체들이 대기업의 횡포에 취약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과 대학 정책을 통해 대학들이 최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이 기술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이유는 연구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국립과학재단, 국방부와 같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원금의 절대 규모도 크고 할당방식도 효율적입니다.

**Q** 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 한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창업가 정신', 올바른 기업가 정신이라고 지적합니다. 90년대 후반까지의 고도성장이 외환위기 및 일련의 경제적 위기의 시기를 거치며 국가 전반적으로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가진자에게 냉정한 국민적 정서가 기업인의 성공을 폄하하고, 실패로부터의 재기를 막고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창업가 정신'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A** As mentioned earlier, the best bet is on the universities. They exist, among other things, to promote science and technologies. By encouraging them to conduct top-quality research in promising areas, they will turn out first-class entrepreneurs and venture capitalists. This may take some time, but there seem no proven short cuts. Korea has a strong pool of well-trained intellectual labor force that led the country to a global powerhouse in a short time. I don't see any reason why they can't do another achievement.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의 투자처는 대학입니다. 대학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과학과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대학들로 하여금 유망한 분야에서 최고 품질의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면, 대학은 최고의 사업가와 벤처자본가를 생산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검증된 지름길은 없습니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한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든 잘 훈련된 지적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또 다른 업적을 달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조스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장과의 이번 인터뷰에는 IMI 국제경영원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국제경영원에서는 6월 17일부터 국내 최초로 <제 1기 스탠포드 최고경영자 과정\_Stanford Advanced Management Program>을 개설합니다. 세계적 명문인 미국의 스탠포드 경영대학과 국제경영원이 제휴해 개설된 이번 과정은 최신 경영기법을 접하고 21세기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경영자의 글로벌 감각과 창조적 혁신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련 문의\_스탠포드 최고경영자 과정 사무국 02-3771-0149)